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6期(2025.12.08) WWW.MINGHUI.ORG

한글판 1030호 minghui.or.kr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39만 6285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하여, 12월 2일에 끝났습니다.

주 요 내 용

【수련교류】 글자를 알게 된 신기한 일

【수련교류】 대법이 길을 안내하니 항로를 잊지 않다

【중국법회】 관건적인 순간에 확고하게 선택하다

【중국법회】 “그럼 넌 다 내려놓을 수 있니?”

【중국법회】 어디나 모두 수련 환경이다

〈목차〉

■ 수련교류

글자를 알게 된 신기한 일	3
대법이 길을 안내하니 항로를 잊지 않다	7

■ 중국법회

관건적인 순간에 확고하게 선택하다	14
“그럼 넌 다 내려놓을 수 있니?”	36
어디나 모두 수련 환경이다	43
법 중에서 수련하니 참 좋다	61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73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하카드 제작의 품질도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저를 대법제자로 선택해주셨으니 제가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더욱 엄격하게 자신에게 요구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대법이 저에게 부여한 지혜와 능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사부님께 제자의 진실하게 수련하고 선을 향하는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끊임없이 보살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그러했기에 제자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함께해 준 명혜망에 감사드리고, 명혜 수련생, 기술 수련생들의 진지한 책임감과 사심 없는 도움, 그리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열어주신 수련 환경 속에서 성숙해지고 이 세상에 올 때했던 홍대한 서약을 실현하며, 사부님을 따라 우리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층차가 한계가 있으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과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자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문안을 드리는 축하카드를 직접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도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전문 수련생들이 만든 축하카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의 길이와 너비, 크기, 색상의 조정 등입니다. 수련생들의 무사(無私)함에 감사드립니다.

축하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를 때는 사부님께 여쭙고, 시간이 오래되어 잊어버렸을 때도 사부님께 여쭙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또 저에게 기술 포럼에 접속하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항상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수련생들이 사부님께 감사드리는 언어, 진상을 알고 구원받은 세인들이 대법 사부님께 드리는 존경의 감정은 저를 감동시켰고, 저도 진정으로 사부님의 자비롭고 위대하심을 체득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아는 한 수련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마음을 밖에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생들은 중국에서 악당의 수년 동안의 엄혹한 박해 속에서도 대법제자들이 사악에게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강해졌으며, 진상을 아는 세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린다는 것을 모두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진상이 아닙니까?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감당하셨는데,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계발시켜 주시어, 제가 끊임없이 법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저의 심성도 끊임없이 승화돼

| 수련교류 |

글자를 알게 된 신기한 일

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9년 3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글자를 한 자도 몰랐습니다. 그때 파룬따파가 막 우리 마을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법공부하러 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수련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파룬따파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1. 글자를 알게 된 신기한 일

배운 지 10일째 되던 날, 보도원이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전법륜(轉法輪)’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을 위해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모르는데 책이 있어도 읽을 줄 모릅니다.” 저는 이 법이 이렇게 좋은데 하루에 한 글자씩 배워도 결국 책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얼른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원은 보서(寶書)를 저를 위해 가져다줬습니다.

‘전법륜’을 받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보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를 매우 기쁘게 했는데, ‘전법륜’에 있는 글자를 제가 대부분 알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글자를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하는 걸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가 가로 획이고 어디가 세로 획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글자를 알게 됐을까요? 저는 글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제가 정말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뒷마당에 있는

올케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를 지켜봐 달라고 하고, 글자 한 자 한 자를 읽어 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놀라 마루에서 팀굴며 웃었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어떻게 글자를 알게 되셨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로 글을 알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와 보서를 소중히 안고 아주 진지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을 보고는 아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어?” 저는 “책을 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자 한 자 모르면서 무슨 책을 본다고 그래! 아는 척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정말로 글자를 알게 됐어요. 못 믿겠으면 제가 읽을 테니 들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 한 자 한 자를 그에게 읽어 주었고, 그는 책을 받아 보더니 과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척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지? 어떻게 배운 거야?!” 그때는 사부님께서 제가 진정으로 수련하려는 마음 있는 것을 보시고 지혜를 열어 주신 것인 줄 몰랐고, 그저 책을 들면 읽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가르치지 않았고 책을 드니 글자를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신기한 이야기가 됐고, 사람들은 파룬따파의 신기함과 사부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됐습니다.

2. 다리가 회복된 신기한 일

1999년 7월 박해가 발생한 후 아이가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는데, 당시에 6년 동안 ‘전법륜’을 보지 못했고 수련생과 교류

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행위가 법에 부합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몇 명의 특히 사악한 경찰이 있었는데, 몇 년간 우리는 그들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애가 탔습니다.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시어 한 수련생이 유니콤 지점에서 일하는 수련생을 떠올렸습니다. 수련생이 그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가 혼자 있었고, 그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 악인들의 전화번호와 신분증 번호를 모두 꺼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에 없습니다.” 정말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순수하게 하다

사부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일깨움 아래, 저는 10여 년간 축하카드를 만들어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다시 끊임없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적합한 사진을 찾아 사부님께 문안을 드리는 글을 썼고, 만든 축하카드도 규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명혜의 전문 수련생들이 만든 축하카드가 정말 좋아서 저도 명혜 수련생들의 완성된 축하카드로 사부님께 문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몇 수련생과 교류했는데, 수련생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며, 만들 줄 모르는 수련생은 완성된 축하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부님께

정체(整體)적으로 협력해 사악을 폭로하면 위력이 크다

몇 년 전, 대규모로 사악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일에 참여한 저희 몇몇 수련생이 ‘옳다, 그르다’ 논쟁에 빠졌습니다. 수련생들이 모두 자아를 내려놓고 안으로 찾아 자신을 수련하자 이것이 구세력의 교란이고 사악이 죽기 직전에 발악하는 표현임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고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협조하는 수련생이 여러 법공부 팀에 가서 교류하고 토론하여, 모든 수련생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정법 노정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악인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모두 행동에 나선 후 전체적으로 협력하여 진상을 알리는 사람, 친척을 찾아가는 사람, 직접 그들의 고향에 가서 알아보는 사람 등, 모두 마음을 다해 일했습니다. 얼마 후 많은 악인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명혜망에 폭로된 유명한 몇몇 악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도 명혜망에 보관된 저희 지역의 악인 정보를 검색했고, 또한 ‘일반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나 일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루는 한 수련생이 은퇴한 610 주임에 대한 정보가 아직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반인 컴퓨터로 일부 악인의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그의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컴퓨터에 그의 이름을 쓰자마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서 동시에 생일을 축하했는데, 온 가족의 사진, 생일, 나이를 모두 인터넷에 올렸으며, 정보가 매우 완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수련생들은 모두 매우 흥분했으며 사부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두 다리가 국수처럼 측 늘어져 전혀 힘이 없었으며, 아무 일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목욕할 때도 딸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끌고 나와야 했는데, 딸은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저를 병원으로 강제로 보내 침을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 수련하는 사람의 상태인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일까? 안 돼, 이렇게 앓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어. 나는 연공해야 해. 오직 파룬따파만이 나를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두 쉴 때, 저는 온몸의 힘을 들여 침대 옆으로 몸을 옮겼고,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앓아서 동공(動功)을 연마했습니다. 서서히 다리에 약간의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저는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16일의 시간을 거쳐, 저는 완전히 회복돼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집에서 ‘전법륜’ 보서를 딸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보서는 다시는 저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저는 보서를 완전히 암송하여 머릿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여기에 작은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제 다리를 치료했던 그 병원이 제 다리를 고쳤다고 하면서 명성을 크게 떨쳐 많은 사람이 그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병원에서 제 다리를 고쳤다고 믿겠습니까? 그것은 파룬따파의 위력이 인간 세상에서 체현된 것입니다.

3. 교통사고 당시 기적

언니도 파룬따파를 수련하는데 글을 모릅니다. 매일 법공부 할

때마다 외손자가 언니에게 글자 한 자 한 자를 가르치며 읽게 했고, 언니도 진심으로 배웠으며, 외손자도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도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언니의 외손자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조카딸이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당시 이미 하늘이 매우 어두웠고 조카딸은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트랙터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뒤에는 철판 하나가 사람의 앞 시야를 가로막아서 앞쪽 도로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카딸은 급히 집으로 가려 했기에 트랙터 옆을 추월해서 지나갔고 자전거도 매우 빠르게 탔습니다. 그런데 고속으로 달리는 큰 화물차가 정면으로 달려왔고 피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큰 화물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카딸은 너무 다급해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화물차로 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화물차는 10여 미터 더 가고 나서 멈췄습니다. 차 밑을 보니 아이가 없었고 아이가 길가에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몸에 흙 한 줌도 없었습니다. 돌아가 자전거를 찾아보니 자전거는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통사고였지만 모자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뻔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매일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사부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비롭게 제도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진상을 알려준 후 그가 삼퇴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왜 장쩌민을 고소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매우 선량했고, 제가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은 후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저희 집에 여러 번 와서 고소장을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또 왔는데 차에서 우체국 택배 포장 봉투 한 무더기와 주소와 성명란이 적힌 여러 양식의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두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는 저에게 작성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주의 사항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하세요. 제가 모두 발송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 저는 감동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큰 좋은 일을 하셨으니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동시에 저는 속으로 사부님의 깊은 뜻에 조용히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스스로 와서 가져갔고, 발송 후 곧바로 회신을 받았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글과 회신 영수증을 명예망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악당이 심하게 봉쇄하여 우편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교적 중요한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최고 검찰원과 다른 몇몇 부서에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우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를 후 우리는 최고 검찰원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저희를 성취시켜 주시고, 인연 있는 사람을 구원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모든 것은 사부님의 질서정연한 안배이며 모두 사부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단계에 이르렀고, 정법 노정도 이 단계까지 밀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쩌민 집단은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를 고소하고 그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하며, 이것 또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한 협조인이 밤을 새워 작성한 고소장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몇몇 수련생은 그녀의 방식을 참고하여 잘 작성했습니다. 곧 명혜망에서 다양한 고소장 템플릿을 발표했습니다. 교류를 통해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 시의 수련생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쓰는 것을 도와주었고, 모두가 서로 협력하며 전체적으로 잘 협조하여 대다수가 실제 정보로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가족과 친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소의 물결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낼 때 모두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냈는데, 직원들이 양식을 작성하면서 “어디로 보내나요? 누구에게 보내나요?”라고 물었고, 심지어 열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공안이 은밀히 개입하여 그들을 압박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편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가에 우체국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안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전문적으로 우편물을 수거하고 발송하는 사람이며, 집으로 방문 수거도 가능하고, 건당 수수료가 있어서 많이 보낼수록 수수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집으로 오셔서 우편물을 가져가실 수 있나

대법이 길을 안내하니 항로를 잊지 않다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 몇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수련 체험을 써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력이라 글을 쓸 줄 모르고,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몰라 조금 망설였습니다. 조용히 20여 년간의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니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온 가족은 은사께 절하며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인생, 득법을 기다리다

저희 집은 본래 산동(山東)이 본적입니다. 1960년 대약진(大躍進) 시대에 모든 마을 가구가 집단으로 농사를 지었고, 곡식이 의어도 수확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큰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때는 집에 곡식 한 틀도 없었고 아버지는 굶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셋째 숙부가 수수깡을 조금 줘서 아버지를 감싸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 살이었고 어머니는 저희 남매들을 데리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 나무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저희 집 뒤쪽은 학교였는데, 여덟 살 때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산나물을 캤지만, 그것으로도 식량을 대지 못해 때로는 다섯째 이모에게 고구마 줄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족을 하셔서 걷기 힘드셨고 힘든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주 산나물에 고구마 말린 것을 섞어 먹었는데, 한 끼 먹고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저희 누나가 동북(東北)으로 시집가서 저희는 누나를 따라 동북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십 대였는

데 학교를 2년 더 다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마침내 짊주림은 면하게 됐고 저는 스물다섯 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마을에서 아내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농촌에서의 힘든 생활로 아내는 온갖 병에 걸려 한 달에 보름은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저는 또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 온종일 열이 났고, 나중에 성도(省都)에 가서야 겨우 치료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1996년, 저는 형님 댁에 방문했는데 형님 부부가 변한 것을 봤습니다. 몸의 병이 낫고 마음가짐이 좋아진 것을 보고 형님 부부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배운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 부부가 저에게도 배우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아내의 병이 점점 더 심해져 온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형님 부부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큰아들에게 큰아버지 댁에 가서 연공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법 책과 연공 테이프를 가져왔고, 그는 바로 득법했습니다. 하루 밤낮으로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다 읽었고, 온 가족이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병이 연공을 하자마자 모두 나았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모두 저희 집에 와서 파룬궁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함께 놀면서 “남을 욕하면 덕(德)을 주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이 득법했고, 저희는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법을 널리 알리고 공법교육을 하거나 사부님의

우리는 진상을 아는 한 상인을 통해 여러 대의 중고 휴대폰과 전화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기술 수련생이 휴대폰을 개조한 후 이 항목을 맡으려는 수련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항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작업이 필요했으며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구입, 전화 카드 구입, 음성 멀티미디어 메시지 다운로드, 휴대폰의 음성 교체, 전화번호 교체, 만약 번호 대역으로 전화를 걸면 한 번에 더 많은 번호 대역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부서나 특정 사람에게만 전화를 걸고 싶다면, 하나하나의 번호를 메모리 카드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악의 박해가 여전히 매우 심각했기에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못했고, 어떤 수련생은 휴대폰을 집에 가져간 후 며칠 만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때때로 여러 대의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었고, 저는 자주 일곱, 여덟 대의 휴대폰을 메고 나가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카드에는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생이 필요할 때 가져가고, 저는 보통 두세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삼퇴한 사람이 매우 많았고, 저는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녹음을 다 들을 수 없을 때는 종종 수련생에게 듣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수련생은 말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녀는 한 대의 휴대폰으로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삼퇴시켰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거나 다른 이유로 계속 진상을 알리러 나오지 못했던 수련생들도 이 휴대폰을 사용한 후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쩌민 고소에 참여하여 정법 노정을 따라가다

2015년, 장쩌민 고소 정보를 알게 된 후 저는 이것이 천상이 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한 사람이 십여 장 또는 수십 장의 카드를 들고 산이나 공원 등 조용한 곳으로 밤에 가서 교대로 발송했습니다.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바꾼 후 다음 카드로 바로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기에는 카드 한 장당 한 번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번호만 발송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잘 배우고 정념이 강할 때는 초범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한 그룹을 발송할 때마다 성공 여부를 테스트하여,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멀티미디어 메시지 카드가 차단되자, 우리는 음성 전화를 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부님께서는 저의 질투심, 환희심, 과시심, 불만, 비난 등 많은 집착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스마트폰에 대해 전혀 몰랐고, 병음과 영어도 모르며 나이도 많았습니다. 이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항목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매우 크니 나는 반드시 이 일을 맡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협력하는 수련생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서약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명예망을 열고 사부님께 합장했을 때 즉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부님이 계신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고 계시며, 사부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아 놓으셨고, 사부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신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원만하게 협력하고, 마음을 터놓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에서 교류하고,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 아래 이 항목은 저희 시에서 효과가 좋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설법 녹화 테이프를 틀어줬습니다. 그때 저희는 매일 법을 알리는 일로 바빴습니다. 길에서 수련생들은 사부님의 경문을 외우거나 설법의 한 단락을 외웠습니다. 대법은 저희 마음속에 깊이 뿐리내렸습니다. 1998년, 저희는 저희 현(縣)과 타 현, 저희 시(市)에서 열린 대규모 수련심독교류회에 모두 참석했는데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와 득법 후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매번 법회 후 저희는 모두 제고했고, 비학비수(比學比修- 배움과 수련을 비김)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풍운이 돌변하고 거대한 난이 닥친다

1999년, 장쩌민(江澤民)이라는 사악한 소인배는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질투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탄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4·25’ 그날, 저는 톈진(天津) 수련생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에 갔습니다. 밤이 되자 문제가 해결됐고 수련생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7월 20일, 중공 악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현에서는 일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고, 저와 일부 수련생들은 현 정부 청사에 가서 파룬궁수련생들의 석방을 청원했습니다. 이미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저희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 와서 연공 방석과 일부 물건을 가져갔지만, 숨겨둔 대법 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鎮) 정부 인원들에게 진상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중독이 너무 깊어 두 번이나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보호 아래 정념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큰아들은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든 면에서 진

선인(眞·善·忍) 기준으로 자신을 단속했습니다. 그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 일하든 불평 없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친절하고 선량하며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말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스물네 살에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파룬궁을 배웠고, 두 사람은 성도에서 일하며 수련했습니다.

2001년, 아들과 며느리는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진상을 알리다가 불행히도 경찰에게 납치됐고,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집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들은 구치소에 납치돼 고문과 고통을 겪었고, 이후 8년 징역형을 불법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네 곳의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겪었고, 장기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워졌으며, 구타, 큰 걸기(上大掛), 강제 음식물 주입, 고무 호스로 때리기, 바늘로 찌르기, 전기봉 충격 등 각종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8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이 끝났을 때 며느리가 그를 마중하러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문지기 앞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예전에 잘 생기고 멋있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뼈만 양상하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명했습니다.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어린 딸은 태어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명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가가 “이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하니 눈앞의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큰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입으로 “나 주사 맞았어, 나 주사 맞았어, 나 주사 맞으면 안 돼”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경찰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말랐죠?”라고 묻자, 감옥경찰은 찔려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을 아는 일부 일반인들도 《사부님의 은혜를 회상하며》나 《9평 공산당》 같은 글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저는 대법 진상 USB를 만들어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릴 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컴퓨터는 제 수련의 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저와 함께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길을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악당이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명혜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당이 인터넷을 가장 미친 듯이 차단했을 때에도 저는 매일 변함없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의 가지(加持)이며, 컴퓨터도 일정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메시지를 이용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다

《9평 공산당》이 발표된 후, 명혜는 잇따라 문자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彩信) 템플릿을 발표했고, 저희 시의 수련생들도 최대한 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술 수련생이 먼저 저희 몇 명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 하는 수련생들이 속속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전화 카드를 구매하는 데 실명제가 필요 없어서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백 장씩 자주 구매했습니다. 그 기간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통한 구원 활동이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명혜 수련생들이 만든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 진상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자주 메시지를 본 사람들의 댓글이 수신됐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는 ‘진상 메시지’를 또 보내주세요.” 나중에 메시지 발송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가 음성 전화를 걸 때에도 여전히 전화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음이 순간적으로 밝아졌고, 수련생들의 교류 글을 보면 바로 저의 마음의 응어리를 겨냥하여 온 것 같아서 괴롭히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습니다. 매일 명혜망에 접속하는 것은 저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또한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명혜망이라는 이 행복하고 즐거운 대가족 속에서, 모두 마음을 터놓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우고 수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혜망을 열면 저는 먼저 사부님께 합장하고 안부를 여쭙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컴퓨터와도 소통합니다. ‘대법제자가 너를 선택하여 우리집에 오게 한 것은 우리에게 인연이 있기 때문이며 모두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잘 협력해야 하며 너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란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고 대법에 동화하여, 내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길을 돋도록 해라.’

저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배웠지만 아직 타자를 칠 줄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수련생이 알고는 즉시 저에게 쓰기 패드(寫字板)를 사다 주었고, 지금은 또 샤오야오비(逍遙筆)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에포크타임스 삼퇴센터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수련생이 저에게 내부 이메일함(站內信箱)을 만들어 주어, 저도 명혜 수련생과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저는 주변에 컴퓨터가 없는 여러 수련생을 위해 힘닿는 대로 일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당문화 해체(解體黨文化)》,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등의 음성 파일과 매주 《명혜 주간》 및 매주 《명혜 음성 방송》을 다운로드하여 메모리 카드에 복사해 주는 것입니다. 수련생이 대법 사이트의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바로 다운로드해 제때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진상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은 음식을 먹지 못했고, 온종일 기침을 멈추지 않았으며 가래를 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러 곳에 전기봉 고문 흔적이 있었고 손발은 부어 있었으며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엉덩이 피부는 괴사돼 검붉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응급 구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심장 기능이 쇠약해졌고 이런 몸 상태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른 살이 겨우 넘은 나이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비보를 듣고 저희 노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어찌 진선인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 희생되니 하늘도 눈물을 흘리는 듯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고통은 호소할 곳이 없었으며 억울함은 풀 곳이 없었습니다.

감옥 측은 외부의 비난과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집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울 곳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저희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명했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감옥 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히려 저희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내는 대법을 수련했기에 수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들은 비록 육신을 잃었지만, 그의 천상의 영혼은 이미 신위(神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면서 저와 아내는 곧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사부님 보호로 무사하다

대략 2005년경, 진(鎮) 정부와 파출소 인원들이 계속 저희 집을

괴롭혀 저는 외지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한번은 밤에 걷다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차에 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나 분명 팬찮을 것이고 남에게 억지 부려 돈을 뜯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니 정말 팬찮아서 퇴원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삼륜차를 몰고 가다가 커브 길에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러더니 차는 네 바퀴가 아래로 향한 채 3미터가 넘는 깊은 도랑에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쾅’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머리만 약간 긁혔을 뿐이었습니다. 삼륜차에는 대법 진상 자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삼륜차를 몰고 현(縣) 소재지에 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날이 밝지 않아 안개가 자욱했고 저는 앞차의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이미 차 한 대가 오고 있었고 저는 급히 피하려고 옆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또 다른 큰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더는 갈 길이 없었고 곧 충돌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 저의 삼륜차 바퀴가 갑자기 똑바로 서더니 두 차의 틈새를 통과했고 차량 파손과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고 이 역시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겨울날, 저는 소가 끄는 수레를 끌고 산에 땔감을 주우러 갔는데 소가 갑자기 발광을 했습니다. 제 한쪽 발이 밧줄에 엉켰고 소는 저를 끌고 맹렬히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발을 붙였는데, 만약 두 다리를 벌렸다면 그 관성으로 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소는 산 아래로 달려가더니

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수련생이 여전히 너무 적어서 정법 노정을 따라가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컴퓨터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련생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을 바로 배우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수련생의 격려는 제가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련생은 저에게 컴퓨터를 사다 주고 시스템을 설치한 후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날 저는 기본적인 상식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혼자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고 명혜망 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녀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몇몇 수련생이 명혜망에 접속하는 것을 돋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시간을 내어 명혜망에 접속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산중에서 조용히 세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제도하시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반드시 사부님 말씀을 듣고, 사부님께서 저에게 안배해주신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걷겠습니다.’

명혜망은 사부님께서 전 세계 대법제자를 위해 열어주신 교류 플랫폼입니다.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저는 머리가 맑아져서 난법자들의 미혹과 교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명혜망을 열고 사존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

엄청난 억제력이 됐고, 또한 세계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특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공포 환경에서 굳건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수련자가 생사를 내려놓고 생명의 본질을 승화시키는 좋은 기회였구나.’

컴퓨터가 나의 여정을 돋다

그 공포스러운 날들 동안, 저희는 엄혹한 박해를 받는 중국 수련생으로서 사부님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를 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지에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수련생이 있지만, 컴퓨터가 없고 적합한 장소도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자금을 내어 수련생에게 주었고,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집 빈방 열쇠도 수련생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련생은 사악에게 납치됐고, 컴퓨터와 방 안의 모든 물건은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가서 현수막을 펼쳤다가 잡힌 후, 현지 구치소와 파출소로 끌려와 90여 일 동안 불법 구금되며 심신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주변 수련생들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마치 흘어진 모래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던 수련생 대부분이 납치돼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제때 사부님의 신경문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사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역에는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컴퓨터 학원에 가서 잠시 구경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몇 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배웠던 영음도 모두 잊어버려서 컴퓨터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

옥수수 더미를 보고 멈췄고, 제 다리를 묶었던 밧줄은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때 저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눈꺼풀이 긁혀 벗겨졌습니다. 저는 즉시 땅에 앉아 가부좌를 했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어서 둘째 아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 몸을 천으로 감싸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기한 일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여러 번 보호해주셨기에 위험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오직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야만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모두 70대입니다.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대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사부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또래보다 젊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몸이 튼튼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수학으로 먹고 입는 것은 걱정 없고 매일 법공부와 연공을 거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과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진상을 알려줬고 마을 주민 대다수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자주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들의 교류 글을 보는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안으로 찾아야 하며 아내와 함께 비학비수하며 파룬따파 수련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법회

관건적인 순간에 확고하게 선택하다

— 28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걸어온 수련의 길 —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법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련 아래 처음으로 여러 해 동안의 수련 과정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수련 체득을 교류하기 위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련한 지 오래됐지만 아주 착실하게 수련하지 못한 제자로서, 글 쓰기에 매우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련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법회의 장엄하고 신성함을 깨닫고 저의 수련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저에게는 어느 한 가지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사부님께 태연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제가 ‘더 이상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련이 어떻든 사부님께 답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으며 동시에 부족한 점을 찾아 착실하게 수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을 얻어 행복하게 수련하다

저는 1997년에 친했던 중학교 동창을 통해 기쁘게 대법을 얻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무신론 교육을 받아와서 늘 각종 기공을 비웃었지만 동창이 저에게 대법을 소개해 주었을 때 웬지 모를 호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파룬궁(法輪功)》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며칠 만에 다 봤습니다. 이 공법은 사람들에게 선(善)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원리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말 좋

있는 그 무리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큰 스피커를 틀고 물건을 함부로 버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문 앞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녹음기가 울리면 즉시 질서정연하게 서는데, 마치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도 법공부 팀이 설립됐는데, 많을 때는 2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전 시의 단체 홍법 연공에 참여했고, 많은 사람이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지내며 한가한 날이 없었지만, 대법의 법광(法光) 속에 목욕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1999년 ‘7·20’,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미친 듯이 대법에 대한 탄압을 발동했습니다.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이 하늘을 덮을 듯이 퍼져 무수한 생명을 중독시켰고, 붉은 공포가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이 잔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과 대법이 비방당하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대법 속에서 몸소 수혜를 입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의 명예를 수호하는 것은 제자의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본 시의 많은 수련생은 여러 차례 성(省) 정부와 베이징 등에 가서 청원하며, 정부가 이 잘못된 결정을 조속히 시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많은 수련생이 잡히고, 맞고, 판결받았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게 됐고, 정부가 대법을 위해 명예회복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대규모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베이징에 청원한 것은 사악에 대한

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득법(得法), 홍법(洪法), 호법(護法)

수련하기 전, 저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1997년, 친척의 인도로 저는 다행히 대법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부님께서는 저의 몸을 정화하여 병 없이 몸이 가벼워지게 해주셨고, 심성도 끊임없이 높아져 심신이 건강한 대법 수련자가 되어 즐겁고 충실히 살게 됐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좋은 법, 정법(正法)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부님을 따라 대법을 끝까지 굳건히 수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고 득법 수련할 수 있도록, 저는 곧바로 대법을 널리 알리는 홍법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잇따라 득법하고 연공장에 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협조인은 새로운 연공장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파출소 옆에 새로운 연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녹음기를 구입하여 연공장에서 연공 음악을 틀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3시 정각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모두 오면 연공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거르지 않고 한 번도 지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공할 때 파출소 경찰관들은 자주 옆에 서서 구경했고, 때로는 몇 번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파출소로 가서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었고, 파출소장은 보서 《전법륜(轉法輪)》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다고 느꼈습니다. 귀신을 모시고 미친 듯이 돈을 모으는 엉터리 기공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당시 저는 짊어서 인간 세상의 일로 바빴기에 잠시 수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이 좋다는 씨앗은 그때 이미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1998년에 또 다른 대법 수련생인 동창과 교류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나 법을 열심히 배워야겠어. 이 법이 너무 좋잖아. 너도 착실하게 수련해야지!” 저는 왜인지 모르게 스스로 정말 수련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스무 살의 저는 그때부터 정식으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후 저는 법공부 팀에 참여해 수련생들과 함께 법을 배우고 연공했습니다.

1999년 박해가 발생하기 전 이 1년 동안의 수련 속에서 저는 이전에 게으르고 잠이 많던 나쁜 버릇을 고쳤습니다. 매일 5시가 넘으면 일어나 연공장에서 아침 연공을 한 후 간단히 식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는 대법 책을 들고 법공부 팀으로 가서 법을 배웠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엄격하게 심성(心性)을 요구했으며 매 수업을 진지하게 하고 반의 모든 학생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우수하고 착한 학생이든 장난꾸러기 문제 학생이든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반에서 아이들에게 대법을 홍보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쳤으며 연공 동작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번은 학부모 총회에서 정(鄭)씨 성을 가진 학생의 어머니가 특히 흥분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특별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

주 철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대법을 가르쳐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고 말하더군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는 엄마 속을 썩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저와 아이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매우 예민했고 자주 성질을 부렸는데 지금은 정말 철이 들었어요. 지금은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고 집안일만 해요.”

이 1년간의 안정적인 개인 수련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충실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법을 깊이 배우지 못했고 수련도 막 시작했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은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피바람 속에서 가족 정의 흔들림에도 굳게 대법을 수련하다

상황이 급변해 1999년 7월 20일 사악한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대법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대법 제자가 집을 잃었고 무수한 중생이 해독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수련을 절대 그만두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으며 울면서 이불을 덮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가족 정으로 저를 흔들려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TV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대법은 절대 우리에게 자살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약을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TV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당시 저는 신수련생이었고 수련생들과의 교류도 부족해서 베이징에 가서 대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법이 좋다는 것만 알았고 TV가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누가 수련하지 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마을 위원회에서 저희 집을 찾아왔고 교장 선생님도 저희 집

책을 삭제한 일을 언니에게 말했고 조카딸이 언니 휴대폰에 아들의 위챗을 추가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큰이 모와 며칠 연락을 못 했으니 영상 통화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와 잠시 이야기한 후 어린 손녀가 동영상을 보려 하자 제가 “할머니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못 보겠네. 할머니 휴대폰에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는 매우 가볍습니다. 정법은 정말로 최후의 최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일을 잘하며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글/ 중국 산둥(山東)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련 후 제가 걸어온 매 단계는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와 거대한 감당이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고, 난세 속에서 각종 복잡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저에게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칭호를 하사하셨습니다. 저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감사한 마음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회 기회를 빌려, 제가 수련의 길에서 기억에 생생한 몇 가지 일화를 사부

기라고 말씀하신 후로 휴대폰 안전에 더욱 주의했습니다. 수련생이 우리집에 올 때 저는 즉시 휴대폰을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들이 새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 때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챗도 같아주고 ‘샤추팡(下厨房: 요리 앱)’도 다운로드해 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가정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싶어 하며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어린 손녀도 안에 있는 짧은 동영상 을 보려고 다투었고 못 보게 하면 울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 위챗은 가족과 언니와 연락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언니는 몇 년간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자주 전화했는데 언니는 “왜 위챗으로 안 하니? 돈도 안 들고 사람 얼굴도 볼 수 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명혜망에는 위챗 삭제에 대한 수련생들의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저도 삭제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언니가 걱정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혜망의 또 다른 글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의 수련생들이 위챗으로 연락하다가 40여 명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은 너무나 엄숙하다. 정법이 이미 최후의 최후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명(名)·리(利)·정(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챗을 삭제했고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도 껐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아빠와 영상 통화를 하려 하자 제가 위챗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삭제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앱은 좋지 않아. 수련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럼 큰이모와는 어떻게 연락하실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위

을 찾아왔지만 마침 제가 모두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 하셨지만 지혜롭게 응대하셨습니다. 제 호적이 마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 위원회의 소란을 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저희 집 안 형편이 가난한 것을 보고 동정심이 생겨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당시에 박해가 심했다면 수련 근기가 아직 얇았던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저의 심성에 따라 조용히 저를 보호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수련생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저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접착 스티커 용지를 사서 마커 펜으로 대법 진상 내용을 썼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와 정법구결을 썼습니다(나중에 정법구결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전봇대나 벽에 붙였습니다. 나중에 진상 자료가 생겼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각 가정의 문밖에 배포했습니다(나중에 이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임을 깨닫고 지폐 파우치에 담아 배포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법을 실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몰래 대법 책을 꺼내어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련생들처럼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대법을 지지하는 장엄한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담이 작고 겁이 많았으나 대법을 굳게 수련하는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돌아와 착실하게 수련하다

그리하여 저는 어머니 몰래 법을 배우는 한편 조용히 진상 표어를 붙이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악한 박해는 제가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인간 세상의 정(情)이 저를 미혹하게 했습니다.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됐고 몇 번의 만남 끝에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대법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법에 대해 정념(正念)이 있었고 박해받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순리대로’ 그와 결혼했습니다.

속인의 정에 미혹돼 저는 서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법도 배우지 않고 진상 표어도 붙이지 않으며 속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대법제자의 기준으로 저를 요구했습니다. 한번은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구(區) 정협(政協) 위원으로 가라고 해서 교육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아니며 대법에 대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법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대법의 씨앗은 시종일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것이 사부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가 법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법에 대한 정념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을의 아주머니 수련생과 우연히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하여 저는 다시 수련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8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수련생이 건네준 대법 신경문을 받아 들었을 때 사부님의 자애로운 부름이 담긴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의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돈 한 푼 받지 않는데, 먹는 것도 남은 음식인데 너희들은 고급 빵을 먹고 등등, 나는 이 집에서 2등 시민이구나.’

마음속으로 너무 억울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남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 옷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처신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돈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내 딸이라면 어른을 잘 대하는 법을 가르쳤을 텐데.’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간 진상을 듣지 않은 주요 원인은 바로 중국공산당(중공)이 일으킨 이 박해, 주입된 무신론적 거짓말과 중공의 연좌 정책,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맷은 원한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사이에 어떤 인연 관계가 있든 제가 이번 생에 대법을 수련했으니 사부님께서 “대법은 연원(淵源)을 모조리 풀어 가누나”(홍음2-대겁을 풀다)라고 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들이 입고 싶은 대로 사 입고, 먹고 싶은 대로 사 먹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가? 이것은 질투심, 불공평한 마음, 억울함, 탐욕, 밖으로 찾는 마음이 아닌가? 이 마음들이 나인가? 아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멸하자. 정념을 발해 철저히 멸하자.’

저는 법공부 중에 깨달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인데 또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나누며 다툴 것이 무엇인가.’ 제 관념이 바뀌자 마음도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위챗 삭제

저는 휴대폰 안전에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평소 법공부 모임이나 수련생의 집에 갈 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구형 휴대폰(2G폰)을 사용했는데, 사부님께서 휴대폰이 도청

그때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6시 발정념을 했고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발정념을 마친 후 저는 잠시 법을 외우는데, 문득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생각하자. 만약 내가 물어본다면 속인들은 수많은 이유를 댈 것이고, 이것이 틈을 만들지 않겠는가?’ 저는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보호해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안으로 찾았습니다. ‘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은가? 혹시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곁과 속이 다르며 항상 자신을 이 집의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 가정에 녹아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제가 매일매일의 모든 일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자 더 이상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착을 제거하다

늦가을이라 실내에 아직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반소매 옷을 입으니 좀 서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한 벌씩 긴소매 순면잠옷을 샀는데 디자인과 만듦새가 모두 좋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희들이 새로 산 잠옷이 질이 참 좋구나. 긴소매고 순면이네. 아빠와 나도 한 벌씩 사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며칠 후 도착했습니다. 두 벌이었는데 모두 여성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싸서요. 아버님 것은 아직 안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제가 원했던 종류도 아니었고 면도 아니었으며 싼 물건이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님, 불충한 제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착실하게 수련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1. 안으로 찾다

수련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이처럼 잠시도 대법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공부 팀에 가서 법을 배웠고 고비를 넘고 있는 수련생들과 함께 법을 배웠으며 당시 매우 착실하게 수련한다고 생각되는 팀을 찾아가 법공부를 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으면 절대 낭비하지 않고 대법 책을 들고 마치 목마른 듯이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졌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명백해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법공부의 긴급함을 깨닫고 여름 방학을 이용해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많았던 저는 아침 6시 발정념을 마치고 《전법륜(轉法輪)》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락을 외우는 데 두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10여 분 만에 한 단락을 외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법리가 저에게 층층이 펼쳐졌고 심성이 빠르게 제고됐습니다. 그 기간에 법의 지도와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한 관(關) 또 한 관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1)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태연하게 사과하다

저는 속인 속에서 부딪히는 것을 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어서 저는 자주 남편과 다투었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법을 깊이 배우면서 저는 이 마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늘 좀 마지못해 제거하는 것 같았고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은 사소한 일 때문에 남편이 또다시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당

장이라도 집을 뒤집어엎을 듯이 했습니다. 저는 즉시 참을 수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팔계야, 적반하장의 능력이 대단하네. 게다가 이 사소한 일 때문에 화낼 가치가 있어?’

제가 분개하며 그와 맞서려 할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수련인인데 어떻게 그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지!’ 하지만 마음 속의 그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저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넌 반박하지 않으면 죽니? 너는 수련인이 될 것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속인이 될 거니? 스스로 선택해.’ 저는 굳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이 될 것이며 오늘 이 관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니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고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남편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소리 지르지 않았으며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소리 안 질러? 오늘 왜 잘못했다는 거 알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어요. 앞으로 당신이 저에게 지적해줘요.”

남편은 좀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찾아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되며 그래야 비로소 수련생이고 그래야 심성을 높일 수 있어요.”

몸이 예전에 어땠는지 알지 않니? 내가 파룬궁을 연공한 지 20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고 무병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집 경제 수입이 다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니? 나는 대법을 수련하기로 굳게 정했다.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이 두렵다면 우리 모자 관계를 끊자.”

아들은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엄마는 내 엄마예요. 나도 엄마가 한번 옳다고 인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안전에 유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심성을 제고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 아들이 저에게 아이를 돌보러 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엄마, 말을 아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혼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 앓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이니 고부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산후조리센터에 그녀를 보러 갔습니다. 만나자 며느리는 쌀쌀맞게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일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쌀쌀맞았습니다. 그녀가 친정엄마와 전화로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5개월 출산 휴가가 끝났고 다음날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연공을 마치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무심코 TV 옆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전원이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는 나와 아이밖에 없는데 이건 날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것을 보고 모두 부러워하며 스스로 진상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면 보답을 얻을 거라고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5일간의 억울한 구류가 끝나고 저는 머릿속에 17명의 삼퇴 명단을 담고 구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아들은 그가 사는 도시에서 돌아왔습니다. 친척이 차를 몰고 저와 아들을 태우러 왔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 모자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각자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친척, 이웃들이 방에 가득했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식사할 때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저를 비난했고 남편은 눈물범벅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남편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경찰에게 맞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제가 잡혀갈 때 경찰의 오만함을 보았고 10여 일 동안 남편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연공하면 당신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웃도 “형수님, 형수님이 가신 동안 우리 형님은 매일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소리 없는 말과 같았으니, 정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홍음-마음고생)와 같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저에게 “며느리가 엄마에게 무릎 끓고 빌어서라도 제발 연공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법 수련은 잘못이 없다. 우리 사부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도 내

남편은 웃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와 남편 사이에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저는 모두 하나하나 평온하게 그 관을 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번은 남편이 화를 낸 후 제가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스스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화내면 안 됐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당신처럼 안으로 찾고 제고해야겠어!” 우리 둘은 즐겁게 웃었습니다.

2) ‘내연녀’를 태연하게 대하다

한번은 남편이 밤에 당직을 섰고 다음 날 아침 그가 막 집에 도착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어젯밤 잘 잤어요?” 순간 저는 청천벽력 같았고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문자를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겠네. 분명히 잘못 보낸 걸 거야. 안 믿기면 내가 전화를 걸어볼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분명히 그 여자랑 짜고 날 속이겠죠. 절대 안 믿어요!” 그리고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달래도 달래지지 않자 저는 그에게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상한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 여자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이어서 또 울었습니다. 울다가 갑자기 멈추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만약 진짜라고 해도 이 일 때문에 수련을 그만둘 거니? 너는 수련인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속인을 선택할 거니?’

그리하여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혜주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문득 며칠 전 어느 수련생과의 교류가 생각났습니다. 그 수련생의 남편에게 실제로 내연녀가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양쪽을 오갔는데 이 수련생은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에게 내연녀를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선량함에도 사(私)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고 남편에게는 되도록 빨리 이러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내연녀에게도 좋지 않고 남편 자신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 수련생의 선량함에 깊이 감동받아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가정으로 돌아왔으며 대법 수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수련생의 수련 경험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이 일에서 수련을 잘 해내고 떳떳한 수련자가 될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불안해하는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울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더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 거짓이라면 더 좋고 만약 사실이라면 저도 화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련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관계가 있어요.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어요.”

남편은 매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거 보통 사람일 때 울고 소란 피우던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냉정할 수 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샤오추이 일행에게 제가 한 말을 전했고, 그녀들은 저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이후에 제가 다시 진상을 알려주자 받아들였습니다.

가오 반장은 말을 참 잘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예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제가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큰언니, 수다 떨자, 수다 떨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빨리 진상을 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그녀의 입을 빌려 저에게 사람을 빨리 구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고, 단 한 사람도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오원(小文)이라는 매춘부에게 제가 진상을 알려주었더니, 그녀는 두 번 이혼했고 아들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파룬궁수련생이었는데 사람이 아주 좋았으며 자신도 대법서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첫날 일하러 나왔다가 여기에 잡혀 왔고 돈도 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대법과 인연이 있어요. 어쩌면 신불(神佛)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도 몰라요. 돌아가서 정당한 직업을 구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세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구류실에는 매일 오후, 의사가 약을 갖다 주고 혈압을 쟁습니다. 의사가 문 앞에 앉으면 구류실 사람들은 작은 창문을 통해 줄을 서서 약을 받고 이리저리 물어보았는데, 저 혼자 침대에 가부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갖가지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악당이 이 박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법을 수련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을까!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썩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들은 제 몸이 이렇게 건

도와주지 않아 제가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는 엄마가 다 빨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당신 엄마는 예순이 다 됐는데 평생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도 늙으면 당신에게 의지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그녀도 옷을 빨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면 몇 시간이고 앉아 있고 심지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 허리가 망가져 일어서면 몸이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자 그녀는 저에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번호를 한 번 말해주자 저는 바로 외웠습니다. 전화로 그녀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의 엄마는 울면서 자기가 아이 교육에 실패했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은 이혼녀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했습니다. 자주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듣기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녀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었지만 그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중 샤오추이(小萃)라는 여성이 가오 반장과 갈등이 생겨 서로 한마디씩 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가오 반장이 더 기세등등하게 감옥경찰에게 고발하려 했습니다. 오전 좌판 시간이 됐습니다. 좌판 시간에는 감옥경찰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가오 반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덮어두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반장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던 여자가 제가 가오 반장에게 귀속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경찰이 떠난 후 그녀는 제가 가오 반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덮어두라고

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했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아!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어!”

저는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대법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이 일을 대하고 당신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 대법은 정말 좋아!”

2. 발정념으로 사람 마음을 해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니 인간 세상의 모든 가상이 사라지다

수련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총차가 제고되면서 심성도 제고됐습니다. 한 번은 사부님의 《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련을 하나하나 넘으면서 저는 사부님의 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저의 총차에서 법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 마음과 정념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마음을 확고하게 제거하고 정념을 확고하게 선택하며, 대법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헤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 질투심, 원망심을 정념으로 해체하니 남편의 직위가 해결된다

남편은 군 복무 후 현 직장으로 전역해 왔기 때문에 줄곧 정식 직위가 없었고 일반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정식 직위는 사악한 공산당 정부에 의해 각각 10만 위안의 가격으로 그해 졸업한 돈과 연줄을 이용한 대학생들에게 팔렸습니다. 한동안 사악한 공산당 정부는 이 퇴역 군인들이 더는 청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시험 방식을 통해 이 퇴역 군인들의 정식 직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편의 부서에만 통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월급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남편의 월급은 늘 제자리걸음이어서 갈수록 적게 느껴졌고 저는 갈수록 불평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원망했고, 남편이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고 원망했으며, 남편이 돈 별 방법을 모른다고 원망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제가 주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욱 심해져서 매일 머릿속에는 남편의 각종 단점만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그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기간 법을 배우면서 저는 조용히 변화했고 안으로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장난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탓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한번은 저녁에 법을 배우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여러 해 동안 경제적 박해를 받은 것이 그의 잘못도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사악한 공산당의 잘못인데 내가 왜 그를 원망하는가! 나는 그를 동정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남편이 여러 해 동안 내가 대법을 배우는 것을 지지해준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그는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를 싫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무슨 마음인가, 맞다, 원망심, 질투심이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수련인이므로 대법제자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때부터 원망심, 질투심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저는 발정념을 했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으며 그것을 제거하고 해체하여 법을 따르기로 확고하게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적어도 3000위안은 돼야 할 것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부서의 퇴역 군인들이

다음날 오후 감옥경찰이 와서 첫 번째로 제 이름을 불렀고 다른 몇 명과 함께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오 반장이 제 이름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구류실에 가보니 더럽고 어수선했으며 감옥경찰이 가져온 큰 흰 통 2개도 기름투성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화장실로 가져가 안팎을 깨끗하게 닦았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만났을 때 남을 배려하고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돼야 하며 고생을 낙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오 반장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선발된 몇 명은 일을 아주 잘해서 구류실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이어서 또 한 무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가오 반장은 저에게 자기 옆에서 자라고 하며 불침번은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는 연공인이다.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저 나이 많고 약한 사람들이 2시간을 서는 것은 견디기 힘들 테니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구류실에는 19명이 있었고 저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정념을 발했습니다. 다른 공간을 향해 빌하고, 구류실의 감시 카메라 4대를 향해 빌하고, 구류소의 모든 감옥경찰을 향해 빌하고, 구류실의 모든 사람을 향해 빌했습니다.

오전 좌판(坐板-구류소 등에서 판자 위에 앉아 있는 것) 시간에 그들은 수칙을 외웠고 저는 정법 구결을 외웠습니다.

오전 청소가 끝나면 자유 활동 시간인데 저는 진상을 알렸습니다. 제 옆에는 36세의 마약 중독 여성 샤오첸(小倩, 가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자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진상 듣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생활면에서도 제가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양말조차 뺄 줄 몰라 남에게 뺏아 달라고 하려 했지만 아무도

주 그녀를 불러내 담배를 피우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관리 능력이 꽤 있고 말도 거침없었지만 대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오 반장이 대법을 인정하는 몇 마디를 마치자, 20세의 마약 중독 아가씨(온몸에 문신이 있는 그 여성)가 제 곁으로 오더니 저를 ‘법 언니’라고 부르며 파룬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대법이 널리 전파 되던 성황,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신기함, 박해 진상과 삼퇴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공감하며 삼퇴도 했고, 그녀에게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저와 다른 한 수련생은 서로 만난 것에 매우 기뻐하며 우리 둘은 정념을 많이 빨하고 사람을 구하자고 교류했습니다.

고도 근시인 한 처녀가 있었는데 다들 그녀를 ‘1200도’라고 불렀습니다. 구류소에 들어오면 안경을 못 쓰게 해서 행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녀를 위해 밥을 타주고 화장실에 가서 씻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고 우리가 진상을 말해주자 잘 받아들였습니다.

7월 날씨는 무척 더웠고 구류실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매일 잡혀 들어와서 새로운 구류실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감옥경찰은 가오 반장을 불러 몇 명을 뽑아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가오 반장이 돌아와 저에게 “큰언니, 저랑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수련생이 있어서 우리 둘이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청원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더이제 남편을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큰 자신감을 얻었고 정념이 충만해 사악한 공산당 정부와 정당하게 논쟁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월급은 1000여 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됐습니다.

나중에 저는 저의 정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법제자 집안의 돈은 대법의 자원이며 대법제자가 잘 사는 것은 법을 실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5000여 위안인데 그는 3000위안에 불과한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족했던 돈도 반드시 보충해주어야 한다. 구세력의 박해를 나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월급은 동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고 한 푼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여러 해 동안 부족했던 20여만 위안을 한 번에 모두 보충받았습니다.

저는 대법의 신기함에 깊이 감탄했고 안으로 찾는 것의 신기함에 감탄했으며 정념의 신기함에 감탄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부님의 《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중 그 단락의 법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2) 쟁투심, 부녀의 정을 정념으로 해체하고 사위와 장인이 화목해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줄곧 저희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고 주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자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임대 아파트에서 가구를 옮기러 갔는데,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남편에게 장갑을 끼라고 건네주자 남편이 가구를 옮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했고, 아버지가 그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크게 화를 내며 사위의 각종 단점을 마구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아버지 까지 전화로 불러들였고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기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남편에게 큰 손찌검을 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화내지 않고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하며 질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이래야 하나? 뭘 하시려는 거지?’ 갑자기 발생한 갈등 앞에서 저는 아버지의 기세에 겁이 나서 울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문제일까?’ 아버지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 눈을 크게 뜨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쟁투심 아닌가? 이것이 바로 나의 쟁투심과 상응하는 것이 아닌가? 평소 꿈에서 베개 속에 콩이 가득 찬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 마음에 모두 ‘투[鬪, 싸움, 역주: 콩(豆)과 투의 중국어 발음이 같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악한 공산당 문화 아닌가? 안 된다, 나는 이 쟁투심을 원치 않는다.’

‘내 쟁투심이 늦게 제거돼 중생이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거울이 아닌가?’ 그리하여 저는 묵묵히 속으로 발정념을 하며 저의 우주 체계 공간장의 쟁투심과 쟁투심의

몸을 웅크리고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이 빼빼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수련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다음날, 반장이 저에게 당직을 서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갖가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울긋불긋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당직 서는 여자에게 그 문신한 사람을 가리키며 “요즘 사람들을 좀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사부님께서 그녀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관념으로 보지 말고 차별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모두 법을 위해 왔으니 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감옥경찰이 와서 점호하며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청원한 사람, 싸움, 마약, 매춘 등이었는데 매춘으로 들어온 사람이 연달아 몇 명이나 됐습니다. 그녀들은 이런 행위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제가 모르는 다른 수련생에게 물었고, 우리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옥경찰이 떠난 후, 모두 편안하게 모여 수다를 떨었는데 ‘가오(高) 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창춘(長春) 사람이라 파룬궁이 어떤 것인지 안다며, 파룬궁은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박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이 이 시에서 식당을 하는데 남편은 조직폭력배고 자신도 온갖 일을 다 했으며 감옥, 구류소도 단골이라 감옥경찰과도 친해서 감옥경찰이 자

파룬도형, 대법서적 몇 권과 경문 등 물품을 불법적으로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들은 듣지 않고 강제로 저를 경찰차에 태워 현 공안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만 저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지만 제가 어찌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공안국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집에서 압수한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사진 찍었습니다. 국보 대장이 저에게 경문은 어디서 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해줄 수 없어요. 말해줬다가 당신들이 또 그들을 박해하면 당신들은 큰 죄를 짓게 돼요. 나는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몇 명이 제 손을 눌러 강제로 시키려다 제 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수련과 진상 알리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우리를 시(市) 구류소로 보냈습니다. 구류소에서 인계받을 때 저는 저를 호송한 그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다니, 마음이 편합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역시 매우 난처해 보였습니다. 구류소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당직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당직자가 누울 자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앉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안 된다며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비집어 저에게 작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업력장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아버지 사이의 부녀의 정을 찾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아버지의 단점을 한마디라도 말하면 저는 즉시 반격해 남편을 설득하거나 억누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동시에 저의 우주 체계 공간장의 부녀의 정집착을 해체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문득 아버지가 점차 냉정해지는 것을 발견했고 갑자기 사위를 때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시아버지 앞에서 사위에게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화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를 때려도 저는 화내지 않아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식이라도 한 대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세등등했던 가정 갈등은 쟁투심과 부녀의 정 집착을 정념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해체됐습니다. 나중에 저는 문득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모두 제가 안으로 찾고 사람 마음과 대법의 정념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사부님의 법 속에서 깨달은 ‘선택’이라는 충차의 법리가 아닐까요?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하여 평소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정념으로 해체하고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원치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정념을 선택하고 대법을 선택하며 그 더러운 사람의 마음을 결코 원치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여 후 남편과 아버지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졌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잘 지냈으며 가정 분위기가 특별히 화목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번은 딸이 자궁근종에 걸려 병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했습니다. 결국 저는 안으로 찾았고 저의 우주 체계

공간장의 색욕심을 정념으로 해체하며 그것을 제거하고 원치 않기로 확고하게 선택했으며 법을 확고하게 따랐습니다. 결국 검고 통통했던 딸은 건강하고 예뻐졌고 보는 사람마다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가져온 인간 세상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3. 나 자신이 최고의 진상이 되게 하다

저는 사부님의 《북미 순회 설법》을 학습하면서 진상을 알리는 일이 대법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반드시 잘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임없는 법 학습 과정에서 저는 대법제자 자신이 속인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생들이 대법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법을 잘 모르기에 바로 대법제자 자신의 표현을 통해 대법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진상을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평소에 행동이 형편없다면 중생들이 대법에 대해 나쁜 견해를 갖게 하여 중생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08년 수련으로 돌아온 후 교사인 저는 교육 및 교수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저의 교육 및 교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동시에 모든 아이의 내면에 다가가 대법제자의 넓은 가슴으로 모든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모들이 아이의 성적이 올랐는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생님의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학년 꼴찌 반을 학년 1등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문제 학생들을 근면하고 진취적이며 감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아이들로 변화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도자 모두에게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제

법 중에서 수련하니 참 좋다

글/ 중국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0세로 1998년에 대법을 얻었습니다. 1999년 박해가 발생한 후, 단체 수련 환경을 잊었고 수련을 게을리하며 명예와 이익 속에서 남보다 앞서려 다투고 심성을 지키지 못해 점차 몸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경주 신경이 압박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매일 의기소침해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처럼 못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06년 어느 날, 현지 노수련생이 우리집에 와서 정법의 형세를 알려주었고, 저는 다시 대법과 성스러운 인연을 잊게 됐습니다. 20여 년 간 저는 약 한 알 먹지 않고 무병한 몸으로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악당이 일을 벌이자 나는 진상을 알리다

한번은 중공 악당의 ‘민감한 날’ 며칠 전, 제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현(縣)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인데, 몇 걸음 만에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아직도 연공하냐고 물었고 저는 연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한쪽 팔을 맹렬히 움켜쥐자 다른 경찰 한 명도 나머지 팔을 붙잡았고, 다른 두 경찰은 동쪽 방으로 직행해 제가 사부님의 법상(法像)을 모셔둔 장을 뒤져 우리집의 법상,

이치입니다.”

오늘 그들은 처음에는 도발적으로 물어보았지만 나중에는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드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모두 저에게 돌려주었고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중생들이 진상을 듣게 하셨다.’ 아쉽게도 제 수련이 부족하여 중생들을 탈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간의 연마를 거치면서 저는 경찰에 대한 원한이 없어졌고 다만 이 생명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희생했으니 말입니다.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는 전 세계에서 모두 인정하지만 중국에서는 감히 알아보려 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처럼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먼저 설명서를 보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조금만 알면 됩니다. 법률도 그렇게 많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대략 기억해 두면 진상을 알릴 때 사용할 수 있고, 마음도 당당하며, 중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반에서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심지어 제 반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연줄을 찾고 뒷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 교육 연구실 주임은 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학교를 다녀봤지만 선생님과 같은 이런 교육 및 교수 사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아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제가 수련한다는 이유로 늘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던 한 교사도 저를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생들에게 대법제자가 실패한 겁쟁이나 직장에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임을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현 사회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특히 제가 가르치는 이런 반의 학부모들 중에는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매우 거부감을 느껴 대법제자로서 학부모가 주는 선물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저의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많은 학부모가 제가 선물 금액이 적다고 싫어하거나 자신의 아이에게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중생들에게 제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실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법을 수련하기 때문에 이런 고상한 도덕을 갖게 됐다는 것을 실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선물이나 사례금을 준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예둘러 부드럽게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인생 원칙은 ‘진실, 선량, 관용, 인내(진선인)’라고 말하고는 선물이나 사례금을 돌려보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고 학부모들은 안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특별히 감동했습니다.

한 폭력 조직 두목의 아들은 이전에 매우 장난스럽고 어떤 선생님이든 골치 아파했지만 제 반에 와서는 제가 엄격함과 사랑을 함께 베풀어 아이가 철이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으며 기말고사에서 94.5점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감사의 표시로 설날에 저에게 2000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아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저의 인생 원칙을 에둘러 말하고 사례금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폭력 조직 두목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그리고 평소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던 그가 아이에게 선생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또 사례금을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이에게 비싼 하이난 과일, 책, 옷 등을 사주어 학부모에게 되돌려 주었고, 결국 우리는 매우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렇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너무 에둘러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고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혹은 저를 신고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좋지 않은 마음임을 깨닫고 이 더러운 사람 마음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최고의 진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학부모가 선물이나 사례금을 보낼 때 저는 직접 제가 대법 수련생임을 설명하고 대법 진상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은 반의 한 여학생의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건과류 두 상자와 500위안의 상품권을 가져다주시고는 미처 말할 틈도 없

니다.

그때 밖에서 컵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사람 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세요. 왜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게요. 모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파룬궁수련생이 분신했다고 말하지만, 우리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파룬따파는 1992년 5월 창춘에서 전해져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33년 동안 100여 개 국가에 전해졌는데, 왜 분신은 그때 단 한 번만 있었을까요? 클로즈업 촬영, 원거리 촬영, 기관지 절개술을 했는데도 분신자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성적이고 명석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은 머쓱해하며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파룬궁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 말하면 바로 붙잡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의 직책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의 사상을 관리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데,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뒤돌아 보니 방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가 식사 시간이어서 주방장, 청소부 등 모두 나와서 진상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파룬궁은 신앙이며 사람들에게 수련하여 마음을 선하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국가가 이렇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장쩌민 소인배가 질투해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실(眞)을 타격하는 것은 가짜(假)이고, 선량함(善)을 타격하는 것은 반드시 악(惡)이고, 인(忍)을 타격하는 것은 반드시 투쟁(鬪)입니다. 이것은 상생상극의

드를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있습니까? 제 휴대폰에 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찾는 물건은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면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날 저는 좀 바쁜 일이 생겨 가야 했습니다.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여덟 명이 안에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가지를 청했습니다! ‘다른 공간의 정신(正神)들이 도와주셔서 이곳 중생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막 앉았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퇴직금을 받고 있나요? 누가 당신에게 주는 겁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 쉬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X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여기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법률 문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고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법률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현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를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듣고 나서 누군가 검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당에서 탈퇴하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정부와 대립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당신에게 월급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경제가 침체되었는데, 공산당이 무너지면 파룬궁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모두 대답했습니다.

이 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진상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쓰지 말까,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파출소장이나 부소장일 수도 있는데 만약 나를 잡아간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나중에 내가 그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가 날 괴롭히러 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가 소장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인가? 나는 마침 그에게 진상을 듣게 하고 대법제자의 풍모를 보여주면 된다. 만약 그가 진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시는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게다가 그는 나의 중생인데 어떻게 날 신고하겠는가? 써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하며 게다가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써야 한다.’

그리하여 저는 파룬궁이 무엇인지, 대법제자가 어떻게 법을 배우고 마음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지, 사악한 장쩌민 집단이 어떻게 천안문 분신자살 가짜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에 누명을 씌웠는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여 평안을 보장받는 것부터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까지, 그리고 대법제자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잡히거나 맞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평소 어떻게 대법의 기준으로 저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등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에 관한 이 일에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선의로 알려주면서 360도 사각지대 없는 진상 대백과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대법의 역량이 충만한 이 진상 편지를 들고 제가 산 900위안 상당의 아이가 입을 옷, 책가방 등과 함께 이 아이의 어머니 직

장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녁에 아이의 어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녀의 첫 문장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의 이 편지를 다 읽었어요. 저는 이것(박해)이 음모라는 것을 알아요.”

이어서 그녀는 정의감이 넘치는 말을 많이 했고 우리 대법제자에 대한 존경심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찰 남편이 이 편지를 보았을 때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사악한 생각이 해체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중생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위로와 행복을 느꼈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생을 위해 한 이 작은 일은 법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부님께서는 중생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이것은 속인의 언어로는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을 떠났던 그 몇 년 동안 처음에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할 줄 알았고 학부모의 선물이나 사례금을 절대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대법을 배운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까 봐 두려워 흐름에 따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수련으로 막 돌아온 초기에도 때로는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선물과 사례금 중 일부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돌려주었지만 잊어버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부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후에는 이 방면에서 사람 마음 때문에 대법에 먹칠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홍음》을 암송하고 나가서 직접 진상을 알리다

저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도자는 “그들에게 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장 하급 공무원들이라 모든 것을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물건을 찾으러 올 때마다 우리는 모두 국에 보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국에 가서 지도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지도자가 모두 알고 있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산당의 당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의 명령을 집행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당에 바치라고 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절대 거기에 바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총명하니 빨리 탈퇴해야 합니다. 지금 선악이 모두 보응되고 있고, 이것 또한 천상(天象)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은 수혜자이지만 언제 수혜자에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 바치지 말고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야 합니다. 앞으로 대법제자에게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명령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명령이 큅니까, 아니면 법률이 큅니까? 당신은 명령 집행만 신경 쓰고 법률을 위반하면 누가 당신을 보호합니까? 당신 상사가 당신을 보호해줍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빨리 그 당에서 탈퇴하세요. 그럼 하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선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휴대폰으로 스스로 탈퇴할 수 있는 우회 접속 QR 코

이러나요? 물건을 다 돌려줬는데 왜 또 왔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USB를 안 주셨잖아요.” 인상이 험악하고 피부도 검은 편인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나가!”

제 마음속에서 불이 솟아오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화내는 것은 마(魔)다.’ 저는 하하 웃었습니다.

제가 웃자 그는 민망해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 웃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이 흉악하다고 말했나요? 제가 보기엔 당신은 전혀 흉악하지 않고 매우 선량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두부 심장’이고 효자일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물건은 제가 결정할 수 없고 국(局)에서 결정합니다. 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왜 당신을 찾아와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는 제가 몇 번 더 오는 것이고, 하나는 당신이 쪽지에 당신은 능력이 없다거나, 결정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써 주시면, 저는 이 쪽지를 들고 당신을 찾지 않고 국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시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계속 출근할 수 있겠어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봐, 상사가 그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파출소 모두가 국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지도자가 겸사겸사 지금 정세가 불안정하니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말썽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며, 파룬궁의 물건은 모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글씨가 쓰여 있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지

진상을 알리는 방면에서는 속인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속인이 저를 정신병자라고 말할까 봐, 신고당해서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속인 속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사로서 표현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극도의 사심(私心)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알았고 여러 번 대량으로 법을 배워 이 관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법을 한참 배운 후에는 집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밖에 나가면 입이 마치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번 매우 속상했고 속으로 저 자신을 욕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왜 입을 못 열어, 네 입은 뭘 하는 데 쓰는 거니.’

아무리 자책해도 매번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수련생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첫걸음이고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신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걱정을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홍음 4》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몇 수의 시를 외우면서 머릿속의 사악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정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십여 수 정도 외웠을 때 저는 문득 자비심이 생겼고 사심이나 중생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홍음 4》를 외운 후 저는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진상을 알리러 갔습니다. 마침 자전거를 탄 80대 정도의 할아버지를 마주쳤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배추 가격을 물은 후 진심으로 그에게 사악한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하고

권유했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상태는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공적인 경험은 제가 대법의 위력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법을 외움으로써 저에게 정념과 자비심이 가득해졌고 중생은 이 자비심을 느껴 자연스럽게 몇 분 만에 삼퇴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부부 수련생 두 분과 다른 몇 분의 수련생을 따라 장터를 찾아가며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면 알릴수록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고, 알리면 알릴수록 정념이 생겼으며 알리면 알릴수록 자비심이 커졌습니다. 상태가 좋았던 한번은 제가 두 시간여 동안 19명에게 삼퇴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가지(加持)임을 알았습니다. 사부님의 가지가 없었다면 저는 구우주(舊宇宙)의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옛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맺음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수련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부님께 보고드린 것은 제가 비교적 잘했던 부분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으며 각종 사람 마음이 자주 올라오고 많은 관을 잘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매우 말이 안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수련 상태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도 매우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염병(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구세력의 함정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휴대폰에 미혹돼 속인의 솟폼 영상을 보며 보냈습니다. 더 무

여러분은 가택수색, 감금, 구류 등으로 저를 박해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떨쳐버릴 수도, 누를 수도 없어서 행정소송을 해야겠습니다. 당신이 팀을 이끌고 우리집에 와서 저를 박해했으니 저는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소송장을 제출하면 당신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당신의 아내와 아이, 부모님의 압박은 어떨지, 당신이 온 가족의 기둥인데 말입니다. 저의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당신이 늘 慈悲(츠뻬이)하고 선(善)으로 남을 대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매번 문제와 마주칠 때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생각한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님, 제가 책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모든 대법 책과 다른 수련생의 대법 책까지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파출소를 나설 때 저는 사부님의 법의 위력이 너무 커서 그를 감동시킨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은 사람을 구원하고, 법은 위대하며, 선(善)의 힘이 있고, 타인을 위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진상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법을 더 많이 배우고 저를 위한 사적인 마음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층 한 층으로, 며칠 후에 또 왔다가 며칠 후에 또 없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 파출소에 가서 저는 다른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도

이어서 저는 또 《형법》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긴장하여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실 수 있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책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배후에 있는 악령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나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비닐봉지(10여 권의 대법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를 들고 와서 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회의해야 합니다.” 그는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법을 더 많이 배우고 자신을 수련했으며 저의 두려운 마음이 줄어들었고 자비심을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또 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는 자신이 매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화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대법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나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저는 연달아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서운 것은 그것이 제가 착실하게 수련하려는 의지를 소모시켰다는 것입니다. 법을 배워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발정념은 산만하며 연공은 더욱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련생 여러분께 선의로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 중독은 정말 버려야 하며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련이 정말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과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는 중생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사부님께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휴대폰 중독을 수련하여 제거하고 그 배후의 안일함과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거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반드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수련하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개인적인 체득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그럼 넌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글/ 중국 광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올해 8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올해 저희 막내(어린 수련생)가 대학 입시를 치렀고 성적도 아주 좋았기에,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오기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갖고 두 달이나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오빠도 제가 돌아가서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기 바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 두 아이가 모두 대학에 합격하여 인생의 큰일을 원만하게 마쳤으니, 조상님께 보고도 드리고 조상님이 쌓은 덕과 보살핌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빠네 조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오빠가 아이를 데리고 성묘를 갔었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지만 지금 조카는 이미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보통 사회 상태에 부합하자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8월에는 일이 많아 시간이 매우 빠듯했지만 저는 최대한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을 짜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상황은 예상과 달랐고 정말 곳곳에 의외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오기로 계획한 전날에는 더욱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점심, 숙부댁 자매(언니 한 명, 동생 한 명)가 저와 제 언니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서 자매는 우리 넷뿐인데, 평소에 저는 고향 사람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다가 모처럼 함께 모

니다. “여러분은 그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되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대법 책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상을 알리지 못했으므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량으로 법을 배우고 안으로 수련했으며, 시간이 나면 공의논단을 보았습니다. 공의논단에서 한 수련생이 법정에서 형법 제300조 전문과 구두점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형법 제3조를 외운 후, 법관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외운 형법 제300조에 ‘파룬궁’ 세 글자가 있습니까?” 법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세력이 공안·검찰·법원 등 부문을 조종하여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자신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법제자들이 박해받고 그들이 업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법률을 외울 수도,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화서점(新華書店)에 가서 《중국 헌법》, 《중국 형법》 두 권을 샀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었기에 공의논단에 수련생들이 쓴 몇 조 몇 조를 대조하여 책에 체크 표시를 하고 귀퉁이를 접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파출소에 가서 국보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국의 합법적인 공민이며 모두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니까요.” 저는 《헌법》을 펼쳐서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이때 사건 담당 경찰도 들어왔고 저는 그에게도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또 한 경찰이 들어왔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편지를 열어 한 문장씩, 한 글자씩 확인하며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눈빛을 사용하여 한 경찰을 시켜 옆방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들고 타자실로 가서 경찰에게 몇 부 더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공간의 악령과 생명이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발정념을 하고 사부님께 주재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쓴 것은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으며 경찰이 틀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주재해 주십시오.’

약 20분 후 한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누님, 잠시 오세요.” 그들의 표정이 온화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컴퓨터를 켜고 가져가세요. 물건을 모두 당신에게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쿠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유이고 저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등학교 학력인데 할 수 있나요? USB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USB 안에는 시스템 부팅 디스크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별 거 아닙니다. 가져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컴퓨터 두 대와 휴대폰, 그리고 일부 대법 책을 주었습니다. 제가 갈 때 가방을 메고 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인 것입니다. 저와 제 언니는 수련인이라 우리 둘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자매들은 수련하지 않아 술을 마셨는데, 배갈(백주)을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 작은 술병이 늘어났고 사촌 언니 말수도 많아졌으며, 담배도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여장부 스타일로 지난 몇 년간 객지에서 고생하며 집도 여러 채 장만했습니다. 아이도 우수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월급이 1만 위안이 넘으며, 여자친구도 생겨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언니는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걱정거리도 없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저를 가리키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나한테 좀 말해줘. 사람이 사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니? 이 사회에서 난 희망을 볼 수가 없어. 난 지금 하루에 담배 두갑을 피우는데, 피우고 나면 가래를 뱉어야 해. 난 피우고 싶지 않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 난 행복하지 않아”, “아무개야, 난 너를 스승으로 모실 거야(나중에 저는 사촌 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길을 갈 거야….” 사촌 언니는 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자기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잘 봐라, 얘(저를 가리키며)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다고. 내가 얘한테 배우려는 거지, 얘가 날 끌어들여서 배우는 게 아니야.” 나중에 사촌 언니는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넌 겉모습부터가 달라. 넌 술도 안 마시고, 우리랑 같이 남의 얘기(가십)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먹잖아. 어쨌든 남들과는 달라.”

한 끼 식사를 몇 시간 동안 했고 식사 후 저는 사촌 언니와 함께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형부를 다른 곳에 가서 자게 했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법공부를 하려 한다는 것, 이

것이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저는 묵묵히 일정을 변경했고 제 계획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 친언니가 ‘전법륜(轉法輪)’ 두 권과 제 옷가지를 가져다주었고, 저는 그곳에 머물며 사촌 언니와 ‘전법륜’을 한 번 다 배우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 두 권을 옆에 놔두고 사촌 언니는 급히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질문이 아주 많은데 네가 먼저 대답해 줘.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면 그때부터 책을 볼게. 내가 책을 보기 시작만 하면 단숨에 다 볼 거니까, 모든 의문을 먼저 확실히 해야겠어.” 사실 저희 집안에는 수련인이 적지 않고, 사촌 언니와 동생은 오래전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세대 모두 중공 악당에게 박해받은 계층이라서, 박해와 악당의 사악함에 대해 그분들도 나름대로 체득한 바가 있었기에, 언니가 물은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언니는 제 남편이 수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했는데 왜 네 남편은 안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수련을 잘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의 인연이 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수련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매일 책 보고 연공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심성은 정말 높아졌어요. 명(名), 이(利), 정(情) 나아가 생사까지도 아주 담담하게 보고 매우 평온한 사람이라, 아마 ‘도를 닦지 않아도 이미 도 속에 있다’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이 사회는 미혹 속에서 닦아야 하니, 만약 모든 대법제자의 가족이 다 수련한다면 미혹을 깨트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들이 대법제자의 사진을 찍고, 영상과 녹음을 해서 모두 국(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말을 못 하는 걸까? 왜 당당하지 못 할까? 왜 경찰들은 그렇게 거만할까? 왜…’ 생각할수록 저는 스스로 일부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법을 배울 때 때때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 정말 좋다고 느끼지만, 생활 속이나 실천 속에서는 사용할 줄 모르고, 결국 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자비롭게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공의논단(公義論壇)’에서 수련생들의 교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보면서 우리는 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에게 따지고 되물어서 그들이 정해 놓은 사고방식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이 법을 위반한 지점을 말하면 타개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박해받는 위치에 두지 않고 그들이 법을 위반했으며, 인간 세상의 법률을 위반했고, 다른 공간에서는 큰 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약간의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업을 지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의논단을 참고하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결합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편지 세 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통은 국보 대장에게, 한 통은 파출소장에게, 한 통은 사건 담당 경찰에게 줄 편지였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여 먼저 소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국보 대장을 만나 그에게 편지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국가의 법률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공부해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한 수련생이 저희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법을 외우다가 운반공[搬運功]까지 외웠는데, 저에게 왜 운반공을 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사부님께 가지를 청하여 공능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가부좌를 하고 사부님께 가지를 청했습니다. ‘제가 비록 수련을 잘 못하지만, 사부님께서 저에게 가지하시어 소운반이라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권 한 권 운반해도 괜찮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 공능(功能)을 하사해 주십시오.’ 저는 문득 제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운반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 하더라도 매일 가서 발정념(發正念)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갈 것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저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공간의 사악한 생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파출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제 딸에게 전화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 공법을 수련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배우라고 설득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계속 이러면 앞으로 당신의 앞길과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예부터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역자(逆子)라고 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효자(孝子)라고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다시 파출소에 갔을 때 경찰 몇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괜찮고 아주 좋네요.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진선인의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모두 착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언니는 큰언니(저의 친언니를 가리킴)가 수련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언니도 수련하는데 왜 저 모양이지?” [큰언니는 98년에 대법을 접했지만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숙부가 언니를 찾아 수련을 권했고, 언니도 저와 아버지(수련생)가 구름 위에서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꿈을 꾸고 나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고, 형부가 울면서 수술받으라고 애원하자 언니는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형부와의 정관(情關)을 넘지 못하여,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부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 일이 갈수록 심해져 언니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넘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두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언니가 다른 방면은 다 잘하는데 유독 형부라는 정(情)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놓지 못했나 봐요.”

언니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넌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니까 네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니?” 저는 진지하게 안으로 찾아보았고 내심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내려놓지 못할 게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겪은 것은 다 생활 속의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해 초 졸업장을 못 받게 된 다거나, 직장에서 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하거나, 직장을 못 구하거나…, 나중에도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일들이었는데, 어쩌면 남들은 큰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저는 그냥 다 작은 일이라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족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이 생기면 바로 선택하고 즉시 결정하며, 그러면 그 일은 제게서

지나간 것이 되어 이리저리 재면서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는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겉보기에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얻은 것이 더 많고 더 좋습니다. 사촌 언니는 “그래, 넌 지금 아주 좋아 보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또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언니에게 대법이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묻고 책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수련하면 다른 건 모시면 안 되는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언니네는 20년 넘게 ‘보살’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일단 놔두고서 먼저 책부터 보라고, 한번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우리는 책을 십여 페이지 보고 언니가 좀 쉬어야겠다고 해서 잤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언니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피우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한 사람씩 한 단락을 돌아가며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어서 배웠는데, 중간에 언니에게 무슨 질문이 있으면 멈추고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우리는 제4강까지 다 배웠습니다.

낮에 아래층 가족들이 만두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언니가 내려가서 만두를 가져와 삶아서 저녁으로 먹자고 했는데, 언니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크게 변해 있었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모시는 것이 자기에게 정보를 보냈다면서, 저는 책을 감히 못 보겠고, 조금도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잘하

에게 말했습니다. 수련생은 그것이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투쟁’이라며, 쟁투심과 원망심을 없애면 좋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없애고 싶었지만 배척할 수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사부님의 신경문 《관건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를 외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급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튿날 외우다가 법으로 저 자신을 대조해 보니 제가 수련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파출소에 가서 물건을 되찾으러 갔고,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민원실을 통과하지 않고 몇 걸음 빠르게 걸어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저를 보고 “누구 찾으세요?”라고 묻자 저는 아무개를 찾는다고 말하고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위층에서 방마다 찾다가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의 사무실 문패에는 ‘방범사무실(防範辦)’이라고 쓰여 있었고, 방 벽에는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임무’, ‘국보 제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곧바로 말했습니다. “제 개인 물품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가져가고 싶다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물품이고 당신이 함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압류하라고 했고 저는 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면목이 없고 대법제자의 호칭에 면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괴롭고 걱정됐으며, 제가 매우 명청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민원실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퇴근 시간이다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그들이 왔습니다. 분명 고의였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이 종이 몇장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장을 저에게 내밀었는데, 그의 뜻은 한장씩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어 들고 보니, 그 위에는 ‘아무개,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밤 11시에 우리집에 와서 수색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뛰더니, 그의 손에서 펜을 낚아채서 이 두 명 경찰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히 이름들을 가렸지만 저는 이미 보았고 제 손에 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늦은 밤에 한 무리가 우리집에 와서 가택수색할 때, 저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오늘 당신들이 저에게 보여주니 아주 잘됐네요. 당신들은 저를 조사할 수 있지만, 저도 당신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인터넷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 물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저는 당신들 집 문 앞에서 막고 있을 거예요.”

저는 펜을 그에게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파출소 문 앞까지 저를 쫓아와서 좋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지도자이니, 지도자를 찾아가지 말고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당신이 우리집 문 앞에서 막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집에서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신 물건은 제가 천천히 모두 돌려줄 테니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약간 불쌍해 보여서 한마디 했습니다. “진선인(眞·善·忍)을 반대하면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 수련생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오늘 상황을 수련생

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발정념(發正念)으로 장을 청리(清理)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래층에 모신 것은 호황백류(狐黃白柳: 족제비, 여우, 귀신, 뱀 등)로 사람의 병을 봄주는 것들이었고, 위층에 모신 것은 ‘보살’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방 안에 격리했고 그것에게 언니의 이 환경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발정념하여 지저분한 것들과 다른 공간의 난신(亂神)을 청리했으나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손을 떨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전까지 온종일 담배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언니가 관(關)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관은 언니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리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일념(一念)의 차이며 언니가 대법을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순식간에 제거돼요. 당승(삼장법사)이 서천으로 경을 얻으러 갈 때 구구팔십일난을 겪으며 걸음마다 험난했었고 요괴가 잡아먹으려 했잖아요. 하지만 위에서 관음보살이 보고 계셨고 손오공이 보호할 수 있었으며, 구하지 못할 때는 관음보살이 와서 요괴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보장해줬어요. 모두 놀라기는 해도 위험은 없었어요. 단지 당승의 의지가 확고한지 아닌지를 본 것입니다.”

사촌 언니는 매우 낙담하며 자기 집은 지금 다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예전 일을 떠올렸음을 알았습니다. 대략 2010년, 사촌 언니의 아버지, 즉 제 작은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수련생)의 추천으로 대법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당시 반신불수가 된 지 이미 여러 해였는데, 책을 며칠 보다가 한 번을 다 보기도 전에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집

에서 모시던 그것들이 소동을 피우기 시작해 거의 온 가족이 병이 났고 수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작은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했고, 작은아버지는 결국 수련을 포기하고 몇 년 후 울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촌 언니가 선택했으니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언니가 굳이 차로 저를 데려다주겠다고 고집했고, 제가 차에서 내릴 때 언니는 제게 “너와 작은 삼촌(저희 막내 삼촌으로 대법제자입니다)의 선택은 광명한 거야. 슬퍼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도 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쓰는 것은 이 자체가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각성하고 사고하며 주동적으로 대법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수련해 온 대법제자는 얼마나 행운입니까! 대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수련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연히 다름을 느꼈습니다. 저희 큰아이(수련생)의 말로 하자면, ‘강도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할 때라야 비로소 ‘강도를 높이는’ 법입니다. 온갖 일이 긴박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일 사상에 많은 것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자비로우시어 제자의 좋지 않은 것들을 빠르게 없애주고 계십니다.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잘 수련하여 쏜살같이 올라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중국에는 헌법과 형법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도 당신들을 관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국에 전화하여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소리치고 있어서 영상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국에서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상대하지 말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구류소로 보내져 10일간 구류되었습니다.

구류소에서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연공하고 진상을 알리고 안으로 찾고 저를 수련했습니다.

구류소에서 나온 후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수련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으로 약간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파출소에 가서 물건을 되찾고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며, 이 과정 또한 수련의 여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말도 잘 못하고, 언어 표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진상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정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고할 좋은 기회이며 놓치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아쉬움을 덜 남기기 위해 파출소에 가서 대법 자원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파출소에 가서 물건을 되찾으러 갔습니다. 집에서 마음가짐을 평화롭게 하고 진상을 알리며 대법제자임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쟁투심, 원망심, 억울한 마음 등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누를 수도, 배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찰인데, 우리가 토비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붙일 자격이 있습니까? 깊은 밤에 양가집 부녀자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하는 것이 토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모두 나갔습니다.

잠시 후 몇 사람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누님,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저는 그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또 이 수법이구나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중국’과 ‘중공’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 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책들을 다른 방으로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각지 설법 14》와 《각지 설법 15》만 남겨주고, 저 혼자 그곳에서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간 줄 알았고, 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복도로 나가보니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문도 스마트 도어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해이해져서 비록 세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을 수련하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인해 명, 리, 정, 색, 욕 등에 이끌려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고, 구세력이 틈을 타 박해하도록 허용했다. 사부님께 면목이 없구나.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세요.’

저는 밤새 책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출근한 당직 경찰이 그 사람에게 제가 밤새 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대 회의를 마친 후 저를 분국(分局)으로 데려가 지문과 다른 정보를 기록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며 법을 위반합니다! 양갓집 부녀자를 괴롭힙니다!

어디나 모두 수련 환경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로우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에 대법을 얻은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53세입니다. 파출소에서 압수 물품을 되찾는 과정에서 자비심을 수련해 낸 체득을 여러분과 교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밤 11시, 저는 집에서 명혜망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련생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우르르 대여섯 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가져가려고 하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요?”

그때 한 경찰이 종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수색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쇄된 것이었고 글씨가 매우 옅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제 이름만 손글씨로 아주 크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 하나 쓴 것이 수색 영장인가요? 도장도 없잖아요?” 한 경찰이 “수색해”라고 말했고, 그들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소파로 밀어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 년이 넘도록 휴대폰에 중독되었고, 특히 솟恫 영상에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명혜망에서 오래전에 위챗 등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라고 알려주었지만 저는 계속 아까워

하며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고, 설치했다가 다시 지우면서 마귀를 끌어들였습니다. 사부님, 대법 자원을 보호해주십시오. 사부님, 이 불충한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십시오. 제자가 사부님께 짐을 지워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협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프린터 몇 대가 거기에 놓여 있었고, 한 대는 탁자 위에 있었으며, 진상 지폐도 있었습니다.

그때 뇌리에서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그것들이 수련생과 대법(大法)을 박해하는 데 채용한 행위는 모두 극히 사악하고 떳떳지 못하며 폭로를 두려워하는 것이다.”(정진요지2-이성) 저는 마음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다. 당신들은 내 입을 막을 수 없다.’

처음에는 소리 지르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것은 명(名), 리(利), 정(情) 중에서 명(名)이니,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힘껏 외쳤습니다. “강도야!” “사람 살려!”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몇 명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두 사람이 저를 침실로 끌고 갔고, 저는 침실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워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집안 수색도 멈추고 저를 달랬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토비(土匪, 지방 도적 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어요.”

그들은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명단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명단을 보라고 했지만 제가 자세히 보기로 전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이웃 몇 분이 와서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말하자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수련하면 어때요? 그녀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요? 누구를 건드렸어요?” 경찰은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못하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우리집 전동 자전거 배터리 빽어버린 건 당신들이 신경도 안 쓰면서 왜 착한 사람들만 잡아요? 그녀는 우리 동네에서 공인된 좋은 사람이고 모두에게 잘해 줍니다. 당신들은 왜 좋은 사람만 괴롭히나요?” 경찰들은 난감해하며 이웃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은 다시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딸에게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저를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떠날 때 한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프린터 가져갈까요?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돈은요?” 그 경찰이 말했습니다. “가져가지 마. 그녀가 계속 소리치는데 어떻게 해?” 또 다른 경찰이 사부님의 법상(法像)을 가져가야 하느냐고 묻자, 어떤 사람이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빨리 가자”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보니 그들이 저에게서 가져간 물건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물품들을 회의실 큰 탁자 위에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컴퓨터 두 대, 책 50~60권, 사부님 법상도 있었고, USB 6~7 개, 연공 플레이어 두 개, 휴대폰 두 개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 물건들이 당신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협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토비 증명서는